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 한선 국가선진화지수 2016
발제자 : 문휘창 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제경영·전략 교수
일 시 : 2016년 10월 19일(수) 오후 2시
장 소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창립 10주년 기념식 세미나 주요 내용

< 요약 >

☞ 10월 19일 한선재단 10주년 기념식에서 문휘창 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제경영·전략 교수를 연사로 '국가선진화지수 2016'을 주제로 논의했습니다.

■ 선진화지수를 종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평가모델은 총 5가지의 선진화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국제화로 대분류가 구성되고 10개의 중분류, 37개의 소분류로 나뉜다. 각 평가항목을 0부터 100까지의 수치로 표준화한 후 종합하면 국가선진화지수(National Advancement Index, NAI)를 도출할 수 있다. 위 평가 지표로 측정된 평가대상 국가는 총 40개국이다. OECD 국가 35개국과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을 포함한 선발 개도국 5개국, 모두 40개국을 표본으로 한다.

■ 한국의 국가선진화 순위는 2013년 대비 1단계 향상함으로써, 국가선진화가 '낮은'그룹에서 '중간'그룹으로 상승하였다. 한국의 부문별 순위 변화를 살펴보면, 경제, 문화 부문에서 순위가 2013년 기준으로 4~5 단계 정도 상승하였다면, 사회, 국제화 부문에서는 2단계가 하락하였다. 정치부문은 순위변동 없이 31위를 유지하고 있다. 조사대상 국가 중 선발 개도국은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정치, 사회, 국제화의 발전이 필요하다. 반대로 선진국은 높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 경제 발전을 필요로 한다. 한국은 선발 개도국에 비해 선진화의 5가지 측면에서 모두 높지만, 선진국에 비해서 사회와 국제화 부문이 취약하다.

■ 선진화 구조 분석을 통해 한국의 부문별 현황을 살펴본다. 선진화의 5가지 대분류 기준을 보았을 때, 지난 3년간 문화, 경제 부문은 발전하였으나 사회, 국제화 부문은 순위가 4위에서 5위로 떨어졌다. 중분류로 더 나누어보면, 경제적 분배가 높은 편에 속하지만 사회

적 삶의 질 수준은 낮은 편이다. 객관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해왔으나, 주관적으로는 스스로 부족하다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에서 나타나는 불만족 지수라 말할 수 있다. 10가지 중분류를 기준으로 한국과 선진국을 비교해 본다면, 열위부문에서 분배와 다양한 문화의 차이는 감소하였다. 하지만 나머지 측면에서는 모두 차이가 증가하였다. 특히 법질서, 국제참여, 국제공헌은 선진국에 비해 차이가 뚜렷할 정도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분석 내용 중에서 강점은 강화하고 약점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제한된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전략을 세워야 한다. 전략을 단·중·장기적으로 세워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보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삼성의 한 제품이 약점이 되어 큰 파장을 일으킨 것과 같이, 강점 강화보다 중요한 건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나타나는 약점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민주화를 안정시켜야 하며, 기회균등과 성불평등지수, 노사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중기적인 전략이 시급하다.

■ 한국에 대한 시사점으로 선진화 구조를 5가지 대분류와 10가지 중분류 면에서 살펴보면, 한국의 종합순위 상승은 경제와 문화 부문의 상승에서 비롯된다. 사회와 국제화 부문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정치적 발전은 현재 정체되어 있다. 선진화 향상 전략으로는 우위 강화뿐만 아니라 열위의 보완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선진국과의 지속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제도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선진화지수 접근법 및 측정방법

· 종합적 접근법을 위한 평가모델 · 지표 · 대상국

- 국가선진화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최근에는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경쟁력 접근법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경제적 성장보다 폭넓은 가치를 추구하는 행복적 접근법을 강조하기도 한다. 경제적, 경쟁력, 행복적 접근법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 접근법을 올바르게 연구하는 곳은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유일하다. 본 연구는 종합적 접근법을 학문으로 발전시키고, 실제로 측정하여 정책결정자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선진화지수를 종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평가모델은 총 5가지의 선진화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국제화로 대분류가 구성되고 10개의 중분류, 37개의 소분류로 나뉜다. 각 평가항목을 0부터 100까지의 수치로 표준화한 후 종합하면 국가선진화지수(National Advancement Index, NAI)를 도출할 수 있다.

- 5가지로 대분류되는 평가지표를 각각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경제 평가지표는 소득과 분배로 나뉜다. 소득을 나타내는 지표는 1인당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 성장지수, R&D 지출, 네트워크 준비지수로 소득 성장을 나타낸다. 분배도 소득분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포함하여, 성불평등지수, 노사분쟁, 기회균등으로 수치화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국내 지니계수가 OECD 국가 중 낮은 축에 속하여 소득 분배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불평지수가 높다는 점이다.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불평지수는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위 평가 지표로 측정된 평가대상 국가는 총 40개국이다. OECD 국가 35개국과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을 포함한 선발 개도국 5개국, 총 40개국이 표본이다.

■ 국가선진화지수 2016 분석 결과

: 한국 전체 31위, 경제·문화 상승, 사회·국제화 하락, 정치 변동 無

- 2016년 국가선진화지수 종합순위 중 상위 10위 국가들은 주로 유럽의 소국들이다. 이 중 한국, 중국, 일본은 중·하위권에 위치한다. NIES(신흥공업경제국) 4개국 중 싱가포르와 한국은 순위가 상승하였으나, 홍콩과 대만은 하락하였다.

- 세부적 그룹 분석을 통해 40개국의 지수를 높음, 중간, 낮음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의 국가를 다시 2013년 대비 순위변동에 따라 향상, 유지, 퇴보 3개 그룹으로 분류해 아래와 같은 3x3 매트릭스를 작성하였다. 한국의 국가선진화 순위는 2013년 대비 1단계 향상함으로써, 국가선진화가 ‘낮은’그룹에서 ‘중간’그룹으로 상승하였다. 한국의 부문별 순위 변화를 살펴보면, 경제, 문화 부문에서 순위가 2013년 기준으로 4~5 단계 정도 상승하였다면, 사회, 국제화 부문에서는 2단계가 하락하였다. 정치부문은 순위변동 없이 31위를 유지하고 있다.

- 경제와 기타 부문 간의 상관관계를 도식화하면 정의 함수를 도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와 함께 기타 부문도 발전한다. 그래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룹은 주로 경제 위주 발전을 이룩한 아시아 국가들로 향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그래프 위에서 올라가는 그룹은 주로 유럽의 소국들로 경제 및 기타 부문의 선진화지수가 높다. 경제 발전 초기인 개도국 단계에는 경제와 정치가 뚜렷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다. 허나 경제가 더 발전하면서, 정(正)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즉 경제발전과 함께 민주화, 자유화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시작한다는 걸 의미한다. 사회와 국제화는 경제발전과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정치와 문화는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



그림 2. 경제와 기타부문의 상관관계

그림 1. 선진화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

는다. 이러한 상관관계가 어떤 시사점을 보여줄까? 선발 개도국은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정치, 사회, 국제화의 발전이 필요하다. 반대로 선진국은 높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 경제 발전을 필요로 한다. 한국은 선발 개도국에 비해 선진화의 5가지 측면에서 모두 높지만, 선진국에 비해서 사회와 국제화 부문이 취약하다.



그림 3. 경제와 기타 항목간의 상관관계

■ 선진화 구조 분석을 통한 한국의 현황

: 한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강점 강화하고, 약점 보완해야

- 선진화 구조 분석을 통해 한국의 부문별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자. 선진화의 5가지 대분류 기준을 보았을 때, 지난 3년간 문화, 경제 부문에서 발전하였으나 사회, 국제화 부문에서 순위가 4위에서 5위로 떨어졌다. 중분류로 더 나누어본다면, 경제적 분배가 높은 편에 속하지만 사회적 삶의 질 수준은 낮은 편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객관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해왔으나, 주관적으로는 스스로 부족하다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심리적 불만족 지수라 말할 수 있다.

- 한 외국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많은 시장에 진출하여 좋은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국내 언론은 ‘내일은 없다’는 듯 비관적인 입장을 취하는가에 대해 물었다. “한국은 객관적으로 혹은 상대적으로 분명히 선도하는 부분이 있으나, 주관적으로는 항상 부족함을 느낀다.”고 대답하였다. 일본은 내적 만족도가 높기에 현재 경제가 정체되어 있다. 경제적 분배가 5위로 상승하였으나,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축에 속하고, 아직은 시정될 문제들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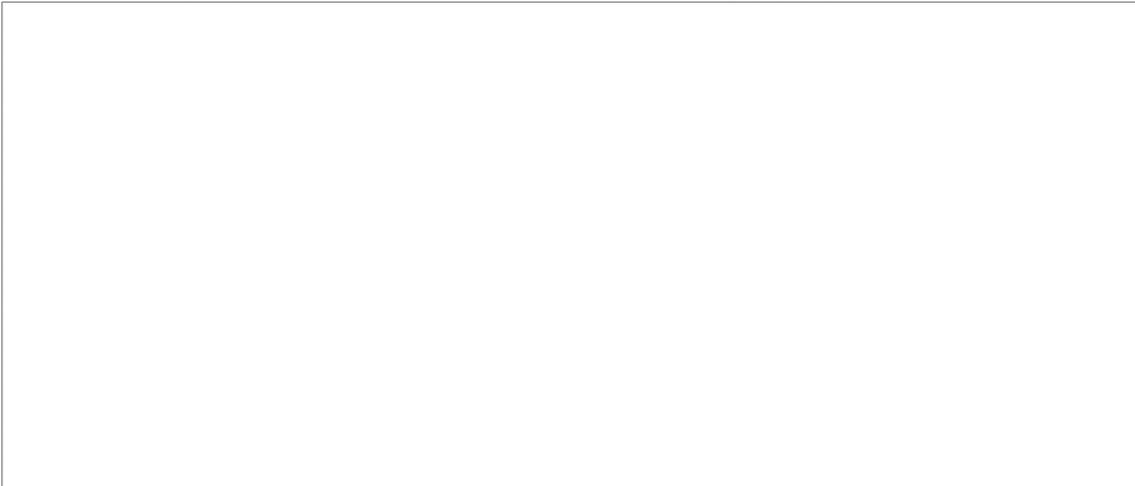


그림 4. 한국의 부문별 현황

- 10가지 중분류를 기준으로 한국과 선진국을 비교해 본다면, 열위부문에서 분배와 다양한 문화에서의 차이는 감소하였다. 하지만 나머지 측면에서는 모두 차이가 증가하였다. 특히 법질서, 국제참여, 국제공헌은 선진국에 비해 차이가 뚜렷할 정도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언제나 최소의 노력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중분류의 어느 항목이 문제를 일으키는 지에 대해 따져보아야 한다.
- 구체적인 중·소분류 항목에서 선진국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높으면 한국의 강점으로, 낮으면 약점으로 분류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의 강점과 약점을 나눈다면, 중분류 소득 부문에서 전반적인 소득은 높은 편이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높지 않았다. 이외 R&D 지출과 네트워크 준비지수는 절대적으로 높다. GINI 계수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기회균등, 성불평등지수, 노사분쟁 면에서 불평등하다. 분배 측면에서 심리적인 요소가 작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평등지수가 높다. 허나 경제학적으로 도출하는 GINI 계수에 의하면 분배가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의 강점으로 볼 수 있다.
-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분석으로 나타나는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제한된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전략을 세워야 한다. 전략을 단·중·장기적으로 세워서 추진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강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 상대적으로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공공부문을 단기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공동부문을 단기적으로 강화 및 보완해야 하며, 기업 혹은 국민과 같은 민간 부문을 급진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그릇되었다. 개발도상국 단계에서 경제성장을 위해 낮은 인건비로 높은 성과를 이룩했다면, 앞으로는 경제적 분배,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문화 창출과 정치적 국제화를 통해 선진국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삼성의 한 제품이 약점이 되어 큰 파장을 일으킨 것과 같이, 강점 강화보다 중요한 건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나타나는 약점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민주화를 안정시켜야 하며, 기회균등과 성불평등지수, 노사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중기적인 전략이 시급하다.

■ 결론

: 선진화지수 2016 비교분석 결과로 도출하는 한국에서의 시사점

- 본 연구는 분석 모델을 구축하여 국가·그룹 간 시계열(시간의 경계에 따라 연속적으로 관측된 관측 값의 계열) 분석을 통해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바탕이 된 선진화 평가모델은 경제적 측면을 강조한 경쟁력 평가모델보다 더 포괄적인 종합적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 서양 선진국은 전통적으로 경제 및 기타 부문에서 균형 발전한 모습을 보였다. 서양 선발 개도국은 유럽 모델을, 동양 선발 개도국 중국과 말레이시아는 NIES 모델을 추구하였다. NIES는 경제 부문에서는 우위에 있지만, 정치를 포함한 다른 분야에서는 열위에 있다.
- 한국의 시사점으로 선진화 구조를 5가지 대분류와 10가지 중분류 면에서 살펴본다면, 한국의 종합순위 상승은 경제 및 문화 부문의 상승에서 비롯된다. 사회와 국제화 부문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정치적 발전은 현재 정체되어 있다. 선진화 향상 전략으로는 우위 강화뿐만 아니라 열위의 보완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선진국과의 지속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제도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